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고려한 소형가구의 공간디자인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Space Design of Small – Households Consider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박 성 수, 안 세 윤
국립 한밭대학교, 국립 한밭대학교

Park seong-su, An se-yun
Hanbat National Univ, Hanbat National Univ

요약

198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의 형태는 핵가족의 형태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1,2인 가구가 핵가족의 비중을 넘어 서 우리나라는 소형가구(Small-Households) 시대를 맞이하였다. 현재까지 확장적 개발 중심의 도시 개발로 인해 계속적으로 증가한 주거비용은 소형가구들의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에서의 소형가구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선행 연구 사례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의 3요소를 소형가구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주거 공간과 연관 지어 공간 디자인 방안을 모색한다.

I.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현대의 도시 개발은 확장적 개발 중심의 산업화 과정을 거쳐 물질적 측면에서 부유함을 이루어냈지만 저출산, 인구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저성장,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도시개발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 및 연구 사례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가구 유형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 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소형가구들이 누리게 될 주거 형태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 에서는 소형가구(Small-Households)가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의 주를 이룰 가구(Households) 유형임을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의 소형 가구의 주거 공간의 방향을 연구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소형가구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소형가구의 니즈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의 연관성을 모색하여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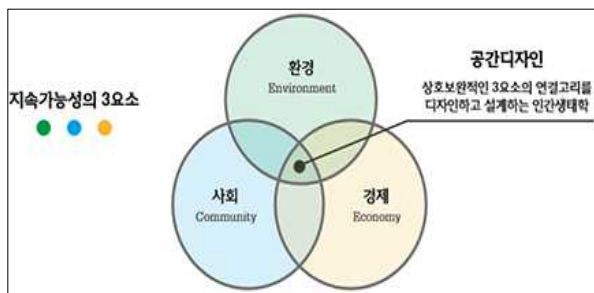
도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은 세대가 바뀌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오늘날까지 변화해왔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환경'은 개발의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산업화를 거쳐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줬고 지금의 '도시'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며 사회적 패러다임이 양적 가치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를 꾀 하면서, 기존의 산업화로 인한 확장적 개발 중심, 무분별한 성장 중심의 도시 개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생태계에 부작용을 심어줬다는 인식과 더불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됨을 자각하게되었고 앞으로 전일론적 자연의 관점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자연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1972년 로마클럽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철학과 함께 등장하였고, 1986년 세계 환경 및 개발위원회 (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

2.3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세가지 차원에서 논의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관해 연구한 Williams(2007)는 상호보완적인 지속가능성의 3요소의 연결고리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간 디자인이라고 보았다.[2]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은 [그림 1]처럼 환경, 사회, 경제를 연결하는 3 개의 교차하는 원의 형태로 표현되어 왔고 Williams(2007)는 이 세가지 요소의 교차점에 공간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그림 1. 지속가능성의 3요소와 공간디자인의 상관 관계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공간적 사고, 즉 공간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을 설계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다.

Ⅲ. 소형가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소형가구의 구성현황

가구(Household)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오늘날 주거 유형의 변화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인해 인구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연결되어 지역 격차,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이혼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등 가구 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2.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가구 구조의 변화

Ⅵ. 지속가능한 도시와 소형가구의 상관관계 연구

4.1 지속가능한 도시와 소형가구 주거 형태의 상관성 분석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속가능성의 3요소에 따라 ‘환경 요소’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공원, 녹지 조성 ‘사회 요소’에서는 사회의 규범 및 관습, 가치관 유지 및 전수와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삶의 질 보장이 있으며 ‘경제 요소’에서는 유지관리비용 절감, 도시의 가치 향상을 도시 개발 및 주거 공간에 투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V. 결론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소형가구가 2016년에 가구 유형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으며 소형가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의 주를 이룰 가구 유형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보완적인 지속가능성의 3요소의 연결고리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간 디자인이다. 지속가능성의 3가지 요소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공간적 사고, 즉 공간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을 설계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다.

■ 참고 문헌 ■

[1] 김재익 외,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 pp.56-57, 2003
 [2] Daniel E. Williams, FAIA, Sustainable Design, John Wiley & Sons, Inc., pp.13-18, 2007
 [3] 한국주거학회 2010 춘계 논문집 강순주 외. 1~2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소형주택 요구도., pp.311~313, 2010